

**사설**

**불광사의 자진 회계감사**

조그만 것 같으나 거대한 의미를 담은 일이 있다. 최근 서울 송파구 불광사에서 자체 회계감사를 받기로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일이 아닐까 싶다.

우선 회계감사를 받기로 결정한 과정 자체가 우리 불교계, 나아가 종교계에 큰 시사점을 던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도회에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결단을 내려서 감사를 결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재가신도 단체 중심으로 사찰재정 투명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스님들이 오히려 한발 앞서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결행하기로 한 것은 승단의 권위를 드높이는 것이며, 앞으로 다른 사찰에 귀감이 되는 큰 행보를 이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회계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이차적인 문제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 투명성을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사찰운영의 참다운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투명성 확보야말로 사찰운영이 올바르게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믿음의 확보를 통해서만 시주들의 정재가 정말 부처님 법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를 통해 믿음이 확산되고 더욱 많은 정재들이 부처님의 일에 모여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어나야 불교계가 바뀌고, 나아가 종교계 전체가 바뀔 수 있다. 현대적 포교의 시발점을 이루었던 불광사가 내딛은 참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행보에 다시 한번 찬탄을 보내며, 이러한 일들이 모든 사찰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보수비 로비 사건 유감**

최근 각 일간지나 방송 등에서는 불교계 유력 사찰 중 한 곳인 지방의 모 사찰 주지가 문화재 보수비를 보다가 많이 책정받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처남을 통해 로비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로비자금으로 주었다는 보도는 불자들의 역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이로 인해 해당 사찰 주지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재는 유구한 역사의 산물이다. 자연과 시대의 난관을 극복한 인간들의 정신을 투영하고 있기에 소중하며, 각 민족에 따라 독특한 민족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역사와 함께하는 불교문화는 이 민족의 보배이다. 특히 불교계에는 수많은 문화재

가 전해오고 있는데 관리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세상사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세상의 사표인 승가의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하고자 로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종교적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수비 분배체계가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씁쓸하기도 하다.

책이기는 전가이나 허물어져 가는 유물을 어찌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차라리 피눈물을 흘릴지언정 길 아닌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불교가 이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이다.

**조계종 “몽골불교 부흥 돕겠다”**

**현황조사 후 협력필요 분야 세부적 협의**

조계종이 몽골 불교 살리기 위해 한국과 몽골간의 불교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1월 25일 “몽골불교 활성화에 조계종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몽골전통불교미술대학 학장 람 푸레밧 스님의 요청에 대해 몽골불교 현황을 파악한 뒤 물적·인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몽골전통불교미술대학 학장 람 푸레밧 스님과 몽골 간담 승가대학 부학장 김선정 교수는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재 몽골 불교는 기독교의 무차별 공세에 명맥마저 이어가지 못할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특히 한국의 기독교가 몽골에 들어와 몽골불교를 위협하고 있어 기독교와 경쟁을 통해 발전해 온 한국 불교에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계종에 협력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푸레밧 스님은 또 “인재 양성을 포함해 몽골 불교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몽골의 불교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처님 말씀을 세계에 전하고 또 불교사상이 21세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몽골불교 살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인 만봉 스님으로부터 탕화 기능을 전수받고 몽골 간담 승가대학에서 부학장을 맡고 있는 김선정 교수는 법장 스님 예방 후 총무원 사찰부장 미산 스님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몽골불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경건 보급이나 불사 지원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몽골불교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산 스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몽골 불교 현황 조사 후 우선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한 뒤 세부적으로 논의하자”며 이른 시일 내에 몽골불교 현황 파악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푸레밧 스님, 법장총무원장 예방 지원 요청 불교인재 양성 포함 각분야에 협력 약속**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몽골의 불교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처님 말씀을 세계에 전하고 또 불교사상이 21세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몽골불교 살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파계사 승가대학(강원) 정식인가**

전국 19곳으로 늘어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11월 25일 제67차 교육원 회의를 열어 파계사 승가대학(강원)을 정식 인가했다. 이로써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 받은 승가대학은 19곳으로 늘었다.

2000년 12월 가인가를 받은 파계사 승가대학은 그 동안 교자사(3명 이상)와 학인(10명 이상) 수

가 승인기준에 미치지 못해 몇 차례 정식 인가가 보류됐다. 현재 종진 스님을 학장으로 철우(교수) 진목(부교수) 혜경(부교수) 스님이 강의를 맡고 있으며, 치문 사집 사교반과 율의반 등에서 14명의 학인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여운, 혜일 스님에게 각각 화엄사, 법사 승가대학의 부교수(중장) 자격을 인정했다.

**2일 교구본사 주지회의 내년 사업·교수철등 논의**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회의가 12월 2일 오후 3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종책 및 종단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북한산 관동도로 및 천성산 교수철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고침** 449호 1면 머릿기사 '수행법 제대로 알자' 기사의 표에서 대표 스님은 제주 원명선원 회주로, 고우 스님은 각하사 태백선원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2면 '포교·신도단체 지도자회의' 기사에서 포교원장은 도영 스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무비 스님은 현재 교육원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설사암관리 제도·법제화 모색**

특별소위, 우선 전체 현황 파악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사설사암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1월 2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설사암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특위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종무직 종사자가 사설사암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설사암이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키로 하고 사설 사암에 대한 종단 지원 방안을 포함한 관리시스템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보조 받게 해주겠다 1억채권 이상호세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는 11월 26일 대형 사찰로부터 정부 보조금 지원 요청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상호(77) 씨를 구속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지난해 경남 모 사찰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찰 측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해 사찰 측 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군승교육 확대·각종법령 정비**

군불교위, 군승의 날 기념법회 봉행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11월 25일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제35회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교육부장 정산 스님,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 김태복 장군 등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군복무 중 불자가 된 메이저리거 서재응 선수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군법사들이 군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의 군 포교 역량 강화와 군승교육회 확대, 각종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해군 작전사령부 강보승 법사(해안사주지) 등 군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20여 명의 스님과 군법사, 재가자들이 공로패를 받았다.

관련인사 4명 이동혁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우리들 범어사 문도대중은 금번 범어사 주지선출이(11월 3일 산중총회) 종헌종법에 의하여 지극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지백 지혜 지흥 대정 선래 일미 홍교 정견 흥원 혜명 몽산 반월 대성 창도  
 신행 혜충 창봉 태완 혜운 청강 광진 통광 무비 성산 광탄 덕운 중원 인걸  
 만상 만적 지정 도실 서촌 일석 춘식 경담 도업 명교 보일 화광 성문 지오  
 원측 일오 재범 종덕 대오 우담 지연 상운 초안 보타 화중 수진 범림 혜진  
 원각 원타 혜운 적운 원옥 송강 지공 혜운 각명 녹연 유정 지광 일광 동제  
 수보 영명 동수 각우 원종 각진 혜성 월주 혜진 현우 범철 호명 범상 도림  
 범현 도진 지만 혜일 현공 지철 혜담 무구 도문 공마 경흥 보명 원광 용주  
 승범 종언 만중 원걸 지현 신일 범광 종현 동언 범일 원운 원대 원전 정혜  
 보륜 원묘 해수 범중 원여 화봉 원봉 법찬 철암 정야 범음 종민 범수 계현  
 본원 보각 지성 현연 완호 대공 진성 탄우 각현 원기 범일 진석 본원 선광  
 중원 강하 월도 현도 범천 각원 상현 여공 원성 시원 대혜 세정 응현 진오

덕관 진성 성진 벽산 도경 광제 성만 약연 탄옥 보산 광원 선타 무량 상현  
 성본 원일 법기 지명 지원 해원 진명 현각 달원 능원 원범 운암 원타 일선  
 무아 주일 휴정 호준 원철 탄성 계협 성모 혜경 경보 광석 순행 선공 성우  
 혜전 현정 명국 일각 선용 운수 무탈 정한 정산 동림 도영 덕원 동호 명원  
 명조 명철 세광 서봉 선영 성원 자원 자응 노옹 청경 선일 초현 허경 허정  
 혜일 혜담 승범 봉명 해교 문운 세등 무염 도회 혜운 태하 상우 상열 진우  
 경호 범천 광조 진성 대웅 대혜 혜등 대성 대원 지원 지문 상진 성일 혜운  
 승언 학륜 지인 지암 유방 범진 범현 범행 도륜 돈오 보각 석각 보은 선공  
 유정 승강 대안 정안 현정 승원 승혜 진공 진조 진건 정안 진실 법해 진철  
 해륜 효성 명철 삼민 동욱 동진 동수 성범 혜장 여명 혜철 혜조 정경 고봉  
 만화 대일 철암 법찬 광원 상원 현오 범연 범림